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5,694.9	19.6	100,500	3.7	-3.4	-30.7	0.0	70.0	33.6	0.5	0.5	0.7	1.4
현대로보티스	6,205.2	19.5	381,000	5.7	-4.9	-10.6	0.0	5.1	4.3	0.7	0.6	14.1	14.7
현대엘렉트릭	1,163.5	7.4	114,000	3.6	-6.6	-0.9	0.0	10.8	9.4	1.0	0.9	9.3	9.7
현대건설기계	1,669.1	10.5	169,000	1.8	-7.9	-9.3	0.0	10.7	7.9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2,858.7	17.4	7,330	4.7	-40.2	-34.6	0.0	46.2	22.9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1,459.9	3.3	13,900	-1.1	-22.6	N/A	0.0	7.8	12.0	0.4	0.4	4.9	3.3
현대미포조선	1,574.0	12.7	78,700	1.3	-15.8	-16.4	0.0	17.0	12.3	0.6	0.6	3.6	4.8
한진중공업	351.0	4.6	3,310	7.3	-9.1	-12.9	0.0	66.6	16.6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340.0	33.9	54,400	0.9	5.0	8.9	0.0	9.6	9.3	1.3	1.2	14.6	13.3
두산밥캣	3,588.9	27.6	35,800	1.1	3.6	-2.1	0.0	13.1	12.4	1.0	1.0	7.4	7.6
현대로템	1,593.8	28.0	18,750	-0.3	0.5	5.9	0.0	24.2	16.5	1.1	1.0	4.5	6.3
하이록코리아	306.3	47.3	22,500	-0.7	-9.6	6.6	0.0	10.2	9.3	0.9	0.8	8.8	9.0
성광밴드	285.4	13.5	9,980	-1.2	-1.7	7.9	0.0	882.2	35.8	0.6	0.6	0.1	1.8
태광	319.3	16.5	12,050	-4.0	9.0	30.2	0.0	72.0	35.1	0.8	0.7	1.0	2.1
두산중공업	1,634.2	7.4	15,350	-0.6	-4.1	-10.2	0.0	10.4	8.1	0.5	0.5	4.7	6.0
두산인프라코어	1,807.5	11.0	8,690	2.0	-2.1	5.8	0.0	7.9	7.3	0.8	0.7	10.5	9.8
두산엔진	256.1	3.4	3,685	2.9	-26.3	-7.6	0.0	45.3	32.5	0.5	0.5	1.0	1.5
한국항공우주산업	4,625.2	17.3	47,450	1.6	-3.3	8.6	0.0	27.2	20.6	3.2	2.9	12.1	14.4
한화테크윈	1,869.9	18.0	35,550	3.8	4.4	7.1	0.0	18.2	14.3	0.8	0.7	4.3	5.2
LIG넥스원	1,315.6	11.6	59,800	4.2	12	-17.9	0.0	15.1	12.4	1.8	1.6	12.5	13.8
태웅	387.1	1.8	19,350	1.6	12.8	16.2	0.0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36.3	3.2	5,050	4.7	-0.2	1.3	0.0	-210.4	29.9	1.5	1.4	-0.7	5.0
한국기본	235.6	15.3	5,360	0.4	-6.0	-8.2	0.0	N/A	N/A	N/A	N/A	N/A	N/A

주: 카버리티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현대重·삼성重, 작년 수주목표 초과 달성…새해 목표 상향**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부문(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수주액이 100억달러(150척)을 기록해 16년 59억달러(64척) 대비 69.5% 증가함. 지난해 목표치인 75억달러를 훨씬 상회함.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총 69억달러(28척)의 수주를 기록해 16년 5.2억달러 대비 크게 상회했고, 전년 수주목표는 65억달러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0억달러(25척)을 수주했고, 16년 15.5억달러 대비 크게 상회했으나 전년 목표 45.7억달러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알려짐. 올해 조선 3사의 조선 부문 수주목표는 현대중공업 132억달러(+32% YoY), 삼성중공업은 77억달러(+11.6% YoY),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5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임. (뉴스1)

SIW: 신조선가 125p(+1 WoW), 중고선가 94p(+2 WoW)를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신조선가 지수는 125p(+1 WoW), 중고선가 지수는 94p(+2 WoW)를 기록함. 중국 GSI Nansha는 중국 COSCO Shipping Energy에 11.4만DWT급 탱커 3척, 11.0만DWT급 탱커 2척, 6.5만DWT급 탱커 2척을 발주함. (Clarksons)

Twice as many tankers scrapped in 2017 after late flurry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탱커 폐선이 4분기에 급증하며, 2017년에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알려짐. 2017년에 총 169척이 폐선됐고, 규모는 1,319만DWT로 알려짐. 2016년은 총 88척으로, 규모는 530만DWT임. 작년 12월은 28척이 폐선됐고, 규모는 238만DWT로 알려짐. (TradeWinds)

올해부터 LNG선 40척 발주…수주행보 이어가나

Wells Fargo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세계에 40척이 넘는 LNG선 발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국의 석탄규제로 친환경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가 주된 동력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LNG현물가격 증가가 예상되고, LNG선과 LNG-FSRU, FLNG 등 해양생산설비도 발주될 것으로 전망함. (EBN)

현대重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17년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고 알려짐. 1년 72개월 간 교섭 끝에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노사는 기본급, 동결과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시급 등에 잠정합의함. 조합원 찬반투표는 내주 중 실시할 예정으로, 전체 투표 과반 찬성시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됨. (경향신문)

정부, 2018년도 조선·해운 등 기존 산업 신속한 구조조정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2018년 1분기 안으로 조선, 해운 등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조선 혁신성장 방안으로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 지원과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방침. 노후선박 폐선과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을 위해 43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 (선박뉴스)

삼성重, 2,100억원 규모 LNG선 수주 확정

삼성중공업은 해외 LNG 선사에서 18만CBM급 LNG선 1척을 약 2,100억원에 수주하기로 합의했고, 곧 건조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인 LNG 수요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연평균 30척 규모의 LNG선 발주가 기대된다며 알려짐.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1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